

# “‘금강삼매경’ 중국 삼계교도가 편찬”

## 석길암 연구교수 주장

원호 스님이 문을 지어 널리 알려진 <금강삼매경>을 두고 학계에서는 중국에서 위찬했다는 설과 신라에서 재편했다는 설 등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이 경전이 중국 삼계교도들에 의해 편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석길암 연구교수(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10월 18일 법륜사에서 개최한 제83차 월례학술대회에서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유통에 대한 재고’를 발표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의 유통경로가 신라였다 해도 경 자체가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경전 구조와 청법자에 보이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삼계교 인물들이 찬술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미즈노 고젠을 비롯해 김영태 교수, 김삼현 교수, 이시이 코우세이, 신구탁 교수 등 <금강삼매경> 진위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리 검토의 필요성 ▲<개원석교론>이 편입된 <금강삼매경>의 문제 ▲신라의 위경편찬 가능성을 지적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금강삼매경> 구

조가 <화엄경>을 연상하게 한다”며, “비구와 보살, 장자 등으로 다양화된 <금강삼매경>의 청법자는 모든 대중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미즈노 고젠의 주장처럼 <금강삼매경>에 현장의 신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삼계교의 보경사상이 설해졌다는 점, 삼계교 특유의 여래장불·형상불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들어 <금강삼매경>과 중국 삼계교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7세기 신행에 의해 시작된 중국 삼계교에서 <금강삼매경>이 찬술된 이유에 대해 “정토교 등 경쟁하면서 신행의 인물상을 주역으로 하는 경설의 필요성이 대두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600·695·699·721·725년 삼계교에 금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내 유통이 불가능했던 반면, 신라 의상 스님 등에 의해 신라로 유입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권탄준 교수(금강대)는 ‘화엄의 수행도에서 발보리심의 의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화엄의 이치가 설해졌으며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은 교수(진각대)는 ‘마하연의 선법연구’를 <돈오대승정리결>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10월 18일 법륜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대회에서 석길암 연구교수(가운데)는 “<금강삼매경>은 중국 삼계교도가 찬술했다”고 주장했다.

### ‘금강삼매경’을 둘러싼 학계의 진위논란

<금강삼매경>의 진위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일본 석학 미즈노 고젠 박사는 1955년 7세기 후반 신라에 출현한 이 경에 현장의 신역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650-655년경 중국 산둥이나 요동 지방에서 출현한 위경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일본 교토대)는 미즈노 고젠의 설을 발전시켜 “

동산법문 계통에서 <금강삼매경>을 찬술했을 것”이라 주장했고, 1976년 기무라 센쇼 교수(일본 오타리대)는 “신라 승려 대안 스님이나 원호 스님의 주변 인물이 찬술자일 것”이라 추정했다.

1985년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대)는 “신라승려 법량이

<금강삼매경> 찬술자일 것”이라 주장해 이 경이 신라에서 찬술했을 것이라는 학계 추정을 공유했다.

한국학자 가운데는 김영태 교수가 “중국 위경이 아닌 신라에서 불설의 진수를 재결집했다”며, “신라승려 해공이 찬술했다”는 주장을 펴 신라성립설을 세웠다. 여기에 고익인·이기영 박사 등이 동산법문계의 찬술을 반대하고, 신라성립설을 지지했다.

국내학자 중에는 김삼현 교수(동국대)가 처음 <금강삼매경>의 신라성립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최근에도 남동진 교수(덕성여대), 신구탁 교수(연세대),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일본 고마자와대) 등이 <금강삼매경>과 동산법문의

#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정비사업 들어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0월 20일부터

대표적 통일신라시대 탑으로 불국사 삼층석탑에 비견되는 술정리동삼층석탑(국보 제34호) 인근 절터의 시굴조사로 본격적인 창녕지역 불교문화 조사 고찰이 시작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행)는 “창녕군 의뢰로 국보(제34호)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이 서 있는 절터를 정비하기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10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창녕군이 추진 중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1차년도 사업으로 유적 전면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절터 범위와 구조를 확인해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게 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1965년 해체·복원 당시 이동된 탑의 원 위치를 찾아 탑 하부구조를 확인하는 조사 및 동탑과 관련된 가람 구조, 사명(寺銘) 확인 등을 통해 창녕지역 불교문화 양상에 대한 파악·고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술정리동삼층석탑은 학계 일부에서 창녕 탑·금당지성문기비(보물 제227호)에 나타난 인양사(仁陽寺) 탑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965년 해체·복원 당시 3층 몸돌에서 사리와 청동잔형사리용기 등 비뚤한 사리장엄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가 발견돼 주목받기도 했다.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 조선불화 日 수용과정 재조명

## 동악미술사학회 10월 18일 월례발표회



10월 18일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순아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이 불연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복모) 제 48회 월례발표회가 10월 18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우택 교수(동국대 미술사학)가 주제발표 ‘일본 아이치현 지역 조선전기 불화의 현황’에서 조선불화의 수용과정 등

을 재조명했다. 김순아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불교의식법구 불연대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우택 교수(동국대 미술사학)가 주제발표 ‘일본 아이치현 지역 조선전기 불화의 현황’에서 조선불화의 수용과정 등

조동섭·김진성 기자

### 청담사상세미나 열어

진주산업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규)는 11월 11일 오후 2시 진주산업대 학생회관 공영장에서 제7회 청담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김광식 교수(부천대), 김선근 교수(동국대) 등이 청담 스님의 포교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055)751-3699

조동섭 기자

### 옷칠조형학과 개설

#### 동방대학원대학교

전통공예 옷칠을 연구하는 학과가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는 길을 걷는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 이하 동방대학원)는 국내 최초로 옷칠조형학과를 개설하고 2009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옷칠조형학과는 옷칠화와 민화 및 벽화 중심의 옷칠 평면작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를 연구하는 옷칠회화학 전공, 건칠 혹은 탈채칠이라 불리는 협저칠과 관화제작기법 이론을 연구하는 입체옷칠학 전공, 전통의 터전에서 현대 디자인 분야를 연구하는 조형 디자인 전공의 3개전공으로 구성됐다.

교수진은 권순섭 교수와 석좌교수로 김성수 관장(통영옷칠미술관)이 참여한다. 권순섭 교수는 “전통문화인 옷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문화 창달의 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 옷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잘 죽기’ 불교적 해결책 제시

## 불교여성개발원 11월 5일 ‘웰다잉’ 세미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비롯해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호 스님(쌍계사)이 ‘웰다잉에 대한 종교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연설

하며, 오진택 교수(한림대)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정신의학에서 본 삶과 죽음’, 신산철 사무총장(생활개혁실천협의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다잉 장례’를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애주 교수(동국대)와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가수 장미화씨 등이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02)722-2101

조동섭 기자

#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은?

## 불교학연구회 11월 8일 추계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는 11월 8일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200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중표 교수(전남대)가 ‘근현대 한국 불교철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근대 일본불교의 대외진출과 한국불교’, 김순석 연구원(국학연구원)이 ‘근대 불교계의 민족 인식’, 김경집 교수(진각대)가

‘근대 전통불교에 대한 인식과 계승’, 김영진 연구교수(인하대 HK)가 ‘근대 한국불교의 형이상학 수용과 진여연구의 역할’을 발표한다.

불교학연구회 관계자는 “역사학, 국문학, 경제학 등에서 한국 근대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됐지만 한국 근대불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번 학술대회로 한국 근대불교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980-7775 조동섭 기자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지도자는 지도성취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 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면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장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ANGSA24.ORG

# 동산 26주년 기념 및 안동일 이사장 취임법회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올해로 동산 창립 26주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 2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더불어 저희 동산의 제2대 안동일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부 축하공연

제2부 본 행사

제3부 축하리셉션

- 일시 : 불기 2552년(2008)11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TEL 02)732-1206~8